

글로벌 통상마찰

한미 금리 역전

치솟는 국제유가

3% 성장 막는 3대악재... 한국號 앞에 '거센 풍랑'

중국의 대미수출 10% 감소
韓 전체수출 0.36% 동반 감소

소비·생산·일자리 감소 악순환
금리인상에 '가계부채' 장애물

#. 1991년 10월 빌리 타인 선장이 이끄는 어선 안드레아 게일호. 대서양 북부의 항구 글루체스터에 입항한다. 배 안에는 네 명의 어부들과 함께 큰 돈을 벌기 위해 배를 탄 바비가 타고 있다. 그러나 출항 후 악천후가 계속되고 남쪽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폭풍으로 변해 배를 뒤흔들기 시작한다. 천동과 번개가 쉴 새 없이 내리꽂는 칠흑 같은 바다와 악마를 연상케 하는 거대한 파도. 거대한 파도 아래는 뒤집어지기 직전의 배들이 아우성이다.

2000년 조지 클루니가 주연한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의 장면이다.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세계경제의 미래를 예언하며 쓴 뒤 '공포의 경제'를 빛낸 상징처럼 됐다.

영화 속 얘기처럼 한국경제가 거센 풍랑에 흔들리고 있다. 당장 전 세계가 무역 전쟁이 휩싸여 있다. 특히 미·중 무역 마찰에 대한 경고등이 켜지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여기에 한·미 기준금리 역전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 韓국수입 제한 땐 한국 생산 GDP의 1.1% 감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한국이 왜 두 나라의 전쟁에 신경을 쓸까.

미국의 무역전쟁 전선이 넓어질 수록 주변국 통상정책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미·중 간, 혹은 미국과 주변 국가 간 보호무역장벽이 높아질 경우 두 나라에 대한 직접 수출뿐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 통로의 특성상 간접적으로 수출하는 물량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중 수출액을 상품 성질별로 나누보면 원자재 30%, 자본재 65%, 소비재 5% 가량이다. 즉, 중국 내수 시장으로 직접 팔려가는 소비재의 비중은 매우 낮은 반면,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추정 단위: %

국제 유가 시나리오	GDP	GN	소비	투자	수출	CPI
60\$/bbl	-0.22	-0.29	-0.19	-1.76	0.25	0.14
70\$/bbl	-0.59	-0.77	-0.50	-4.66	0.67	0.37
80\$/bbl	-0.96	-1.25	-0.81	-7.56	1.08	0.61

* 추정방법은 현대경제연구원 '국제 유가 하락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참고
** 분기별 평균 WTI 유가를 기준으로 했으며 유가상승 4분기 후의 영향
*** 2017년 4분기(10월 2일~11월 28일) 평균 WTI 유가(\$/bbl) 대비 시나리오별 상승률을 이용하여 산출

유가 상승 시 국내 주요 산업별 생산비 상승 효과 단위: %



62.3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같은 흐름이 지속된다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22%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까지 상승하면 실질 GDP는 0.22%, 80달러로 오르면 실질 GDP는 0.96%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제 유가가 80달러까지 오르면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의 구매력 약화로 소비가 0.81% 줄어 들고 기업 매출 감소, 원가 상승 등으로 투자는 7.5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올라 석유제품의 제조 원가가 7.5% 상승 압력을 받고 이에 따라 석유제품 원가 비중이 높은 화학·운송 산업에서 생산비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원자재와 자본재 비율이 95%에 달한다는 의미다. 중국이 미국 등의 국가로 수출하기 위한 중간다리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 가량 수입을 줄이면 한국은 GDP 대비 0.7%(직접적 0.3%, 간접적 0.4%) 생산감소를 예상했다.

하지만 미국의 무역장벽 강화에 반발해 중국이 GDP 대비 1% 규모로 수입을 제한한다면 대중무역 이스포지가 큰 한국의 생산은 GDP의 1.1%까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직접적 영향이 0.5%, 간접적 영향이 0.6%다.

한국은행도 중국의 대미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도 0.36% 동반 감소할 것이라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여기에 4월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 韓·美 금리역전, 경제성장률 위축 우려

한·미 금리가 역전된다면 2007년 8월 이후 10년 만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2001년 3월, 그리고 신용카드 사태 직후였던 2005년 8월~2007년 8월에 한·미 기준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경제에 큰 충격은 없었다.

하지만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금리를 올리면 빚이 많은 가계의 부담이 늘고, 이는 소비 감소→생산 감소→일자리 감소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4.4%로 1년 만에 3.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4년 2분기 이후 14분기 연속 증가 기록이자 중국에 이어 두 번째 최장 기 증가세 기록이다.

금리를 올리면 빚이 많은 가계의 부담이 늘고, 이는 소비 감소→생산 감소→일자리 감소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

한·미 간 단기 금리 차가 1%포인트 확대되면 원·달러 환율이 1.34%포인트 하락(원화값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

어서다. 원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 기업이 달러로 받은 수출 대금을 원화로 환전했을 때 그만큼 손실이다.

◆ 국제유가 80달러대, 실질 GDP 0.96% 감소

국제 유가도 복병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내 1, 3위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국제유가 수준을 놓고 분

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기업공개(IPO)를 주진 중인 사우디는 배럴당 70달러대를 원하지만 미국산 세일오일 증산을 우려하는 이란은 배럴당 60달러대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유가도 상승세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물 서부텍사스산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1.9% 높은

LG하우시스

www.lghausys.com

머무는 공간에서 움직이는 공간까지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LG하우시스의 앞선 공간기술은 당신과 함께 합니다



비대면 투자 확대·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 1면 '핀테크혁신 활성화방안'서 계속

또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 중심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상반기에는 지정대리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정대리인을 심사·선정한다.

◆ 모바일 간편결제·블록체인 활성화

금융권의 핀테크 서비스는 고도화 한다.

온라인 기반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비대면거래를 확대하고,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서민이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1인 음식점이나 이·미용업 등도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키 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 신기술과 접목된 보험 상품인 '인슈테크(InsurTech)' 출시도 촉진한다. 상반기엔 보험과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등이 결합된 건강증진형 혁신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자율주행차 보험상품도 할인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에도 생기를 불어넣는다.

수수료가 적고 간편한 방식의 계좌 기반 모바일결제 활성화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전자금융업자들이 별도 단말이나 밴(VAN)망 등이 불필요한 앱투앱(App-to-App) 계좌결제서비스 사업에 진출토록 사업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건축장식자재 Z:in

에너지절감 창호/고단열 유리
자연 유래 성분의 벽지/바닥재
다양한 디자인의 인테리어 대리석
공간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인테리어/데코 필름
고성능 건축용 단열재

자동차소재부품

우수한 내구성의 쾌적한 자동차 원단
연비 향상에 기여하는 경량화 부품
품격을 높이는 내외장재 자동차 부품

고기능소재

기능성 가전제품용 표면소재
차세대 진공 단열재
옥외 디스플레이 광고용 소재